

이 자료는 즉시 배포용입니다.

	연구원 보도자료 (총 2 매)	
자료 문의 : 이나영 연구원	연락처 : 055-370-6332	
보도 문의 : 양승호 책임	연락처 : 010-3592-3495	

KOMERI, 친환경 선박·조선 MRO 디지털 혁신 이끈다

- 기술교류회·투자설명회 성료…산·학·연 전문가 150여 명 참석
-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MOU 체결…지역 기업 지원 강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원장 배정철, 이하 ‘KOMERI’)은 10월 1일 경남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5 친환경 선박·조선 MRO 기술교류회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상남도와 양산시 관계자,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산·학·연 전문가,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친환경 추진시스템 ▲IMO 환경 규제 대응 ▲조선·해양 MRO 시장 확대 전략 ▲디지털 시뮬레이션 기반 기자재 개발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행사에 앞서 열린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는 KOMERI 최주형 친환경추진본부장과 오재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이 협약서를 교환했다. 양 기관은 ▲친환경 추진기술 연구 개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투자·금융 연계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을 협력 분야로 설정하고, 경남 조선해양산업이 국제 환경규제와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술교류회에서는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 실증 현황, ▲경상남도 투자정책 동향, ▲IMO 규제 대응 전략, ▲대체연료 엔진 기술 개발 동향, ▲한·미 조선업 협력 및 인증, ▲함정 MRO 시장 확대, ▲친환경 선박 가상개발 방법론 등이 소개됐다. 연사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가상개발 기술이 친환경 기자재 성능 검증의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며, KOMERI가 추진 중인 중대형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실증센터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주목했다.

최주형 KOMERI 본부장은 “이번 교류회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산업 현장의 난제 해결과 기술 고도화를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경남이 글로벌 친환경 조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재호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원장은 “이번 협약과 투자설명회를 계기로 지역 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과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남을 친환경·디지털 조선해양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향후 친환경 추진시스템 실증 사업, 청정에너지 적용 모델, AI 기반 제조혁신 프로젝트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MOU 사진	기술교류회 단체 사진